

‘50년 서울지하철 노하우’ 시드니서 달린다

서울교통공사, 호주 지하철사업 수주

서부선, 서부공항라인 사업 때내 오세아니아 지역 최초 진출 의미 노선 설계·시공 등 종합 컨설팅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의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진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드니 핵심 도시철도 노선 ‘서부선(West Line), 서부공항라인(Western Sydney Airport)’ 운영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전반을 종합 컨설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호주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리카르도레일사’와 공동 참여하며 3년 간 전체 약 70억 원 규모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사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 사업이자, 도시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 컨설팅 사업이다. 공사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시드니의 교통

난을 해결하기 위해 1974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의 약 50년 간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앞서 2017년 이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코스타리카 등의 철도 관련 사업에 진출해 토목·설계 위주로 컨설팅한 바 있다.

시드니메트로 측은 앞서 서울지하철의 안전발판 멘치마팅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을 때 ‘서부선’ 운영컨설팅 입찰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이번 입찰 참여는 당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입찰에 참여한 곳 대부분은 기술 관련 업체였고, 공사는 유일하게 지하철 운영 경험을 40년 이상 쌓아온 운영사로서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호주 리카르도레일사와 호주 시드니메트로 서부선, 서부공항라인 운영컨설팅 참여를 위한 협업계약서를 11월 중순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전문 인력을 파견해 시드니 도시철도 사업과 교통 전반 정책을 검토해 운영 방안을 수립해 운영사인 시드니메트로사에 전달하게 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드니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호주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최초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컨설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50년 간 쌓아온 서울지하철 노하우를 전달해 시드니 도시철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메트로 서부선은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가 추진 중인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다.

높은 출산율 및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이다. 서부선은 시드니 외곽 주거 밀집지역과 중심 업무지구 간 약 24km를 연결하는 시드니 도시철도의 핵심 노선으로, 2020년 하반기 건설을 시작해 2030년 경 완공 및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역서 LP의 문화 가치 느껴보세요”

24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레코드 284-문화를 재생하다’ 전시가 소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문화트렌드로 자리 잡은 레코드(LP)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기획됐다. 레코드의 제작에서부터 유통, 소비, 문화 창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다룸으로써, 레코드를 단순한 음악 저장 매체를 넘어 일상 속 창작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매개체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 상봉·중화 재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한시적 적용

서울시는 23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 주택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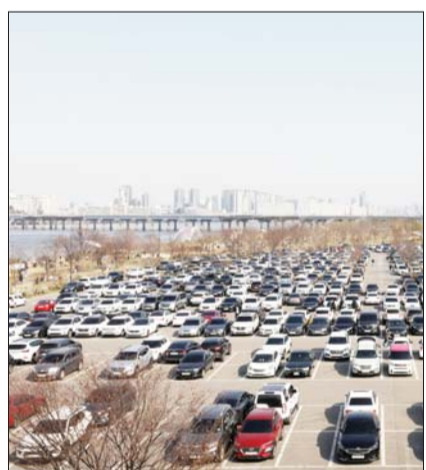
한강공원 주차요금 2초면 자동결제 ‘OK’

내년부터 ‘카카오톡 앱’ 서비스 사전결제로 무정차 출차 가능

주말이나 휴일이면 주차요금을 정산하느라 출차 시간이 지연됐던 한강공원 주차장이 새해부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으로 바뀐다.

카카오톡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에 결제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주차 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 결제돼 무정차로 출차할 수 있다. 출차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기존 20초에서 2초로 10배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전등록결제서비스로 무정차 출차 ▲한강공원 주차장 위치·요금정보 제공 및 길안내 ▲주차장 예상 혼잡도 및 대체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뉴스1

차장 안내다. 카카오톡 앱의 사전등록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와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한강공원 주차장 내 주차설비가 차량번호와 주차 시간을 인식해 요금을 자동 결제한다.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의 위치와 주차요금 정보, 예상 혼잡도 확인 기능도 카카오톡 앱에 추가됐다.

앱에서 ‘주차’ 탭을 선택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고 ‘길안내’를 누르면 카카오내비로 찾아갈 수도 있다. 예상 혼잡도는 주차장의 시간대별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만차 상태라면 인근의 대체 주차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11개 한강공원 모든 주차장에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무정차 사전등록결제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민간 주차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동광산 다차로 하이패스 완공 모습.

무안·광주선 동광산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무안·광주선 동광산TG 다차로 하이패스를 오는 25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한 교통전환 및 개통을 위해 광주

방향(출구)은 오는 25일 오후 4시를 기해 개통하고, 무안방향(입구)은 26일 오후 4시에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경북,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내달 6일까지 2주동안 진행

경북도가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발맞춘 ‘2020 경북 사회적경제 온라인 행복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행복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박람회 참가기업의 기업 정보, 채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담과 채용면접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채용

관’, 참가기업의 홍보영상과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홍보관’, 그리고 ‘이벤트관’으로 돼 있다.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이번 행복일자리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라이브쇼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행복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가 끝나면 전국 최초로 이용자 중심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하 온라인 통합플랫폼)으로 변경돼 사회적경제기업 및 구직청년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구인 구직의 창구로 활용된다.

/경북=김홍희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11월 25일 (수)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7 ~ 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2 | 해질 / 17:16

백령도 7/11

연천 -4/8

동두천 -3/9

파주 -4/9

가평 -4/8

서울 1/10

양평 -2/9

인천 2/10

수원 4/9

용인 2/9

평택 -1/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청송군 AI 가축 방역태세 강화

청송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가축 방역태세 강화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특별 방역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농장 주변 생석회 살포 및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또한 농장 안으로 차량 및 사람 진입을 통제하고, 필요시 소독을 철저히 한 차량만 축사내부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2@